에너지 신산업 육성 2300억 투입

나주시 2025년까지…관련기업 500개 유치·일자리 3만개 창출

나주시가 에너지 신산업 성장 거점 육성을 위해 오는 2025년까지 총 2300억원을 투입한다.

나주시는 20일 "에너지 관련 기업 500개 유치, 일자리 3만개 창출 등을 주요 목표로 하는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에너지신산업은 에너지 저장장치(ESS)와 에너지 관리시스템(EMS), 전기자동차 등과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비즈니스 분야다. 이를 위해 나주시 전역을 스마트 에너지시티로 조성하고 에너지밸리 인프라구축 등에 전 행정력을 모을 계획이다. 빛가람혁신도시에는 전기버스를 중심으로 한 녹색교통체계 도입과 전기자동차를 확대·공급한다.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과 육성에도 집중해 공공청사와 사회복지시설, 민간을 중심으로 에너지신산업의 기반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올 상반기부터 나주 원도심 등 6개권역 1242가구에 도시가스도 보급한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나주가 에너지수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에너지밸리기본계획과 지역전략산업을 중점 추진해 나주발전의 기틀을 확고히 만들겠다"고 밝혔다. /나주=손영철기자 ycson@

나주시, 신재생에너지 공모사업 연이어 선정

올 2개 사업 17억원 지원받아

온실가스 年 365t 감축 기대

나주 종합스포츠파크.

한국전력과 함께 에너지 밸리 조성에 주력하고 있는 나주시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공모 사업에 연이어 선정되는 등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의 저력을 뽐내고 있다.

20일 나주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비보조 사업으로 추진한 2016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과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에 선정돼 국비 등 17억4000만원을 지원받는다.

두 사업은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원 (연료전지, 태양광, 태양열 등) 3종과 에너지절약설비 히트펌프(지열·폐열·공기열) 3종을 기존 전력·열기기 계통과 연계해 전력과 열에너지를 최적의 상태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다. 나주시의 사업대상인 종합스포츠파크는 혁신도시 인구증가와 체육시설 개방시간 확대에 따라 수영장 등에서 전력과 열에너지 소비가 전년대비 15% 이상 상승하고 있다.

나주시는 에너지 공기업의 이전에 따라 '빛가람 에너지밸리 구축 사업'과 함께 나주 종합스포츠파크를 다종 에너지(전기, 열)계통 연계형 마이크로 그리드(micro-grid) 에너지 자립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힘쓰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태양광발전은 유휴부지인 경기장 관람석의 비가림시설과 연계해 사용하고, 연료전지발전의 경우 24시간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한다. 수영장의 경우 연료전지·태양열·히트펌프를 연계해 축열 탱크에 열원을 상시 저장해 풀장 등 필요 설비에 공급하는 '에너지의 생산보다는 소비 효율'에 중점을 맞춰 활용한다.

이번 사업을 위해 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 주관기관 전남도 녹색에너지연구원, 참여기관 5개, 수요자 나주시 등이 지난 15일 사업추진 협약을 체결했다.

기대효과로는 에너지절감 연간 168toe, 온실가스 감축 연간 365톤(tCO_2) 등 매년 소나무 묘목 13만1983 그루 심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에너지 관련 기업과 학계, 연구기관 등이 나주를 찾고 있어 종합스포츠파크의 마이크로그리드 에너지자립 시스템이 구축되면 전력과 열에너지 저감을 위한 교육·홍보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주=정칠현기자 chjung@

■ 새얼굴

"치안유지 최선…안전한 나주 만들 것"

김 학 남 나주경찰서장

"나주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치안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임 김학남(52) 나주경찰서장은 19일 "경찰의 존재가치는 고객인 주민이 평안함을 느낄 때, 주민들로부터 참된 경찰이라고 인정을 받을 때 빛을 발하는 것"이라며 "치안현장에서 직원들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행동하는 수평적 리더십을 바탕으로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나주를 만드는 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김 서장은 또 "나주에서 29년 전 근무했다가 다시 오게 돼 감회가 새롭다"고 덧붙였다.

보성출신인 김 서장은 경찰대학교 3기 출신으로 지난 1987년 경찰에 입문한 뒤 곡성경찰서장과 광주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 광주북부경찰서장, 광주지방경찰청 형사과장 등을 지냈다.

/나주=정칠현기자 chjung@

담양 봉산면 시골마을의 릴레이 이웃사랑 '훈훈하네'

쌀·장학금·방한조끼 전달하자

교회 등 반찬세트 기탁 이어져

20일 담양군 봉산면 송산마을 노인회관에서 지역 어르신들이 후원 받은 반찬 세트를 펼쳐보이고 있다.

담양의 조그마한 시골 마을에서 매서운 한파를 뚫고 따뜻한 이웃나눔 사랑이 이어져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20일 담양군 봉산면에 따르면 새해를 맞아 최근 탄금마을 김영완씨가 백미 40포를 기탁했으며 쌍교숯불갈비(대표 김창회)에서 관내학생 11명에게 각각 50만원의 장학금과 저소득계층 24 가구에 난방유를, 지역의 노인 190명에게는 방한조끼를 전달했다.

이러한 나눔 사랑 소식을 전해들은 봉산교회와 담양애꽃(대표 박영아)에서도 생선, 멸치, 김 등 반찬꾸러미세트를 기탁했다.

봉산면사무소는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경로당 30곳을 방문해 반찬 꾸러미세트를 전달하는 등 면민의 따뜻한 겨울을 책임지기 위해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후원물품을 전달받은 송산마을 김보윤 노인회장은 "마을 노인들이 한파 등을 피해 함께 숙식을 해결하고 있는 경로당에 밑반찬이 전달돼 겨울철 먹을거리에 대한 걱정을 덜었다"며 "노인들의 안전과 건강을 챙겨주는 이웃이 많아 든든하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염권철 담양군 봉산면장은 "면 인구의 30%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으로 대부분이 경로당에서 겨울을 나고 있어 지역사회의 보살핌이 필요한 실정이다"며 "이번 독지가들의 나눔이 이웃과 더불어 사는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나눔의 씨앗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담양=정재근기자 jjg@

메타세쿼이아길 눈꽃 만개…낭만속으로 걸어볼까

지난 19일 청정생태도시 담양군의 관광 명소인 메타세쿼이아길에 눈꽃이 만개해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공해 'OFF' 맑은공기 'ON'

죽녹원, 탄소제로화 추진

시가문화촌 차량진입 통제

담양군이 올해부터 힐링 관광 정책인 '공해 OFF, 맑은공기 ON'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20일 담양군에 따르면 관내 주요 관광지를 '탄소제로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죽녹원 시가문화촌에서 한옥체험장으로 가는 도로의 차량진입을 전면 통제했다.

공해를 막고, 맑은 공기는 유입하는 '공해 OFF, 맑은공기 ON' 사업을 도입한 첫 사례다.

죽녹원은 연간 150만명이 찾는 남도 관광지 메인 코스로, 죽녹원 내 조성된 시가문화촌은 조선시대 가사문학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조성돼 있다.

담양군 관계자는 "죽녹원의 대숲의 맑은 공기를 관광객과 향유하기 위한 것인 만큼 방문객들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담양=정재근기자 jjg@